

수덕사는 단청 하나 없이도 충분한 빛깔을 냈다



소년은 수덕사를 그리며
화가를 꿈꿨고,
수덕사는
그의 미술관을 지었다



이응노 화백이 옥살이를 끝내고 나와 프랑스로 떠나기 전 머물던 수덕여관 입구.

화가 이응노의 아틀리에 10 예산 수덕사 (修德寺)

억울하게 옥에 갇힌 예수 넷의 화가는 차가운 감방에서 간장을 짙어 화장지에 그림을 그린다. 한국 근현대미술사에 굵은 이들을 새기고 우리의 그림을 세계에 알린 그는 프랑스 파리에 잠들어 있다. 어린 시절 덕숭산과 수덕사의 풍경을 그리며 화가의 꿈을 꾸었던 고암(顧菴) 이응노(1904-1989)다.

2010년 3월 26일 예산 수덕사에 '수덕사 선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고암 이응노를 기리기 위한 미술관이다. 미술관은 그가 머물던 절 입구 수덕여관 옆에 세워졌다. 미술관 옆 절, 수덕사로 오르는 길에는

꽃과 연등이 불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경허, 만공' 만으로도 가풍과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수덕사는 창건에 관한 정확한 문헌이 남아있지 않다. 백제 위덕왕(554-597) 때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년여의 옥살이를 끝내고 세상으로 돌아온 그는 수덕사로 간다. 한지와 먹, 그리고 우리의 붓을 들고 세계로 나갔던 그는 1967년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뜻하지 않은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주위의 꾸준한 탄원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한동안 살았던 수덕여관은 옛 모습 그대로 주인을 따뜻하게 맞아준다.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으로 버려졌던 영혼은 개울가 너럭바위 위에 앉아 끝없이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바위에 그림을 그린다. 지금도 그 바위는 수덕여관 앞에 있다.

700년 묵은 법당 앞마당엔 오색 연등이 이응노의 한지 풀라주처럼 허공에 불어있다. 한국을 넘어 유럽에 자신과 '우리'를 알린 이응노의 그림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그야말로 이응노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림이다.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영감을 얻은 그의 대표작 '군상'은 딱 하나로 그린 그림이지만 백가지 색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딱'의 세계를 보여준다. 한 장의 그림은 수백 장의 그림을 동시에 보는 것 같고, 그림인 듯 문자인 듯 경계를 허무는 추상은 예술 본색이다.

그렇게 우리의 것으로 유럽을 사로잡고 세계를 매료시킨 노년의 한 한국 화가는 또 한 번의 시련을 겪는다. 백건우 윤정희 납치미수사건에 연루되어 그의 작품은 국내에서 발표와 매매가 금지된다. 이유는 '빨간색'이라는 것이었다. 여든이 다 된 그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 그는 프랑스인으로 세상을 떠난다.

저녁예불이다. 법고 소리가 바람에 나부끼는 연등 풀라주와 함께 퍼포먼스를 펼치는 듯했다. 대중들이 연등을 헤치며 법당으로 가고, 저녁 해는 법당 문살을 적신다. 미술관 옆 절, 수덕사의 대웅전은 단청 하나 없이도 충분한 빛깔이었다. 누구의 '딱'처럼.

1989년 1월 서울 호암미술관에서 이응노의 전시회가 열렸다. 서울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던 그 날, 이응노는 프랑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다. 그리고 이튿날 세상과 영원히 이별한다. 여든여섯 살, 생일을 이틀 앞두고 그는 또 한 번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으로 떠나갔다. 수덕사를 찾았다면 수덕여관에 들를 일이다. 너럭바위 위에 앉아볼 일이다. 한 영혼이 힘겨운 시간 뒤에 찾아와 머물던 아랫목이다. 누군가의 지나간 흔적을 느껴보는 것은 영혼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일 테니까. 묵탁 소리 예불문 소리에 도량이 찾아갔다. 너럭바위 위로 딱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글·사진 = 박재원 기자 wanihollo@hanmail.net

수덕사 가는 길

경부고속도로를 이용시, 천안IC로 나와서 21번 국도로 운양, 예산, 덕산을 지나면 수덕사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시, 해미IC로 나와서 수덕사 이정표를 따라가면 된다.



이재복 지음 (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 「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거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며, (본문에서)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뻐뻐,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젓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척추 복부 근육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정육부의 뿌리, 비틀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뱃살과 전생,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뭉클,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체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재장운동법!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통증자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빛 살림 정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